

한국 수입경쟁산업 이직근로자의 특징분석*

임혜준** · 이홍식*** · 박성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을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라 수입경쟁이 매우 심한 산업(high-import competing), 중간 정도의 수입경쟁을 가진 산업(mid-import competing), 그리고 수입경쟁이 비교적 덜한 산업(low-import competing)으로 구분하여 수입경쟁의 정도와 비자발적 실업자의 특징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경쟁의 정도가 심할수록 평균연령이 높고 수입경쟁의 정도가 심한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평균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둘째, 이직근로자의 학력수준 그리고 직종과 수입경쟁의 정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입경쟁의 정도는 이직근로자의 재취업확률, 실업기간, 재취업시 소득손실의 정도 등과도 특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 후 노동이동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high-import competing 산업 소속 이직근로자의 약 70%가 제조업에 재취업하였으며, 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재취업하는 비중은 약 4.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수입개방, 노동시장, 이직, 무역조정지원, 사회안전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16, J63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운송수단의 발달,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0-330-B00081). 아울러 본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임혜준 외(20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유익한 의견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전화: (053) 810-2846, E-mail: hi6w@ynu.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전화: (02) 3290-2224, E-mail: honglee@korea.ac.kr

**** 공동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전화: (02) 3775-5584, E-mail: parksj@kli.re.kr
논문투고일: 2010. 4. 13 수정일: 2010. 8. 19 게재확정일: 2011. 6. 16

agreement: FTA)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는 빠르게 개방화·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NAFTA를 기점으로 국가 간 FTA의 체결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방의 확대가 과연 경제성장을 비롯한 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입개방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제주체(winners)와 피해를 보는 경제주체(losers)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¹⁾ 특히, 개방화에 따른 실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및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역피해 근로자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입경쟁이 심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역피해 근로자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산업을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라 수입경쟁이 매우 심한 산업(high-import competing), 중간 정도의 수입경쟁을 가진 산업(mid-import competing), 그리고 수입경쟁이 비교적 덜한 산업(low-import competing)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속한 근로자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고 수입경쟁의 정도와 근로자의 특징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회안전망의 바람직한 형태와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HS 기준의 수출입 데이터와 KSIC 기준의 산업 데이터를 연계하여 수입경쟁산업의 기준과 정의를 기존의 연구문헌에 근거하여 정의한 다음,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근로자 특징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방대한 규모의 한국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징분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도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900만 명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미시자료(Micro-data)인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그 동안의 연구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으로 회귀분석에 치중되어 있어 일반 실직 근로자와 수입개방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의 특징 및 차이점 등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서도, 수입경쟁의 정도가 심할수록 평균연령이 높고 수입경쟁의 정도가

1)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유럽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등을 들 수 있다.

심한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평균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둘째, 이직근로자의 학력수준, 그리고 직종과 수입경쟁의 정도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미취업기간도 수입경쟁의 정도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손실은 수입경쟁의 정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업 후 노동이동을 분석한 결과 high-import competing 산업 소속 이직근로자의 약 70%가 제조업에 재취업하였으며, 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재취업하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절에서는 시장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III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분석자료와 수입경쟁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IV절에서는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특징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한다. 제V절에서는 실업 후 근로자의 노동이동 분석을 통해 실직 후 근로자가 어떤 부문으로 이동하며 그에 따른 임금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VI절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I. 기존 문헌 고찰

시장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문헌에서 상당수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예컨대, Grossman(1987)은 미국의 9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개방과 임금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특정 산업에 있어서 수입과 고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Grossman(1986)에서는 개방에 따른 수입경쟁(import competition)의 노동시장 효과를 미국의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76~1983년 동안에 나타난 미국 철강산업의 고용감소는 수입개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보였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수입증가는 고용의 감소, 그리고 수출증가는 고용의 증가를 가져옴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Wood(1995)와 Dollar and Wolff(1993)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수입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제조업 제품의 수입은 주로 노동집약적 재화에

치중해 있으므로 수입의 증가는 자국 동일 산업의 국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이들 산업의 고용감소로 나타나게 됨을 밝히고 있다. Sachs and Schatz(1994) 또한 수입의 증가는 고용의 감소로 이어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즉, 노동자의 임금 추이 및 산업별 수입구조와 고용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저개발국과의 국제무역의 증대는 노동집약적 재화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동시에 이들 산업의 국내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 국내에서의 노동자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Feliciano(2001), Winters *et al.*(2004), 그리고 Currie and Harrison(1997) 등은 수입경쟁과 고용, 수입경쟁과 임금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Revenga(1992)는 수입경쟁보다 오히려 환율 등의 요인으로 인한 수입가격의 등락이 고용과 임금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김우영 외(2005)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반면, 옥우석 외(2007)의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수입침투율이 높을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Choi(2009)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관세율, 수입침투율, 또는 수입비중이 고용이나 임금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그침으로써 일반 실직근로자와 수입개방으로 인한 실직근로자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입개방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주장과는 독립적으로 한국의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징을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한미 FTA를 비롯한 개방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근로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입경쟁산업의 특징을 비롯한 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징분석 방법론은 Kletzer(2001)의 분석방법과 가장 가깝다. Kletzer(2001)는 미국의 4-digit SIC 분류기준에 기초한 수출입 자료와 NBER database, 그리고 Population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1958~1994년 동안 미국의 수입에 따른 근로자의 특징

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있다.

Ⅲ. 분석자료 및 수입경쟁산업의 정의

1. 분석자료

수입경쟁(import-competing)산업 근로자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이다.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에 관한 정보가 1995년부터 수록되어 있다. 고용보험 DB는 행정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직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고용보험 사업장 DB를 결합시켜 사업장-근로자 연계패널자료를 구성할 경우 노동시장 이행 연구에 적합한 자료가 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자료구축 방법은 먼저 취업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와 사업장 입사시기와 퇴사시기를 이용해 개인별 직업력(job-history)을 구축하였다.²⁾ 이와 같이 개인별 직업력을 구축한 다음 해당 사업장을 수입경쟁 정도로 구분한 후 이 유형에 따라 고용구조 및 노동이동 실태 등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의 실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고용보험 DB가 갖는 한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업장 정보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3) 4)} 그러나 사업체

2) 개인별 직업력 구축시 전근이나 취업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는 상이하지만 취업일시와 퇴사일시가 동일한 경우는 직업력에서 제외하였다. 왜냐 하면, 전근의 경우 특정 사업체에 근무하다 동일 지역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한 사업체로 이동한 것이므로 노동이동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고용보험 관리번호는 상이하지만 취업일시와 퇴사일시가 동일한 것은 사업장 정보 변경에 따른 행정 착오, 업종 변경 등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2005년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31만 5,000개소 중 실제 적용사업장은 1,148개소로 87.3%이고 대상근로자 1,201만 1,000명 중 적용근로자는 866만 3,000명으로 72.1%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노동부, 2006).

기초통계나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해 집계된 전체 임금근로자 및 사업체 적용률은 고용보험 DB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는 고용보험 DB이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 DB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임금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 몇 가지 한계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에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본 논문이 일자리 창출 및 소멸률, 그리고 해고율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근로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DB를 활용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입경쟁산업의 정의

본 논문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연 어떤 산업이 수입경쟁산업인지가 정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어떤 산업이 수입경쟁산업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이른바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각 산업별 총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수입비중)을 계산하여 이 비중이 높을수록 수입경쟁산업에 가깝다고 정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수입침투율은 $[수입/총공급(출하액+수입-수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침투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① 한 산업의 수입증가가 중간재 및 자본재에 집중되고 이를 생산에 사용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내 출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와, ② 증가한 수입이 소비재로서 국내 유사제품을 대체하여 국내 출하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를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입침투율은 이를 구별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액과 국내 출하액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입경쟁산업으로 분류된 품목의 경우 수입이 늘어날 경우 출하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수입의 증가율이 출하액의 증가율보다 훨씬

4) 이 밖에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자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 규모를 과소 추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출하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수입침투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산업의 수입경쟁도를 대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⁵⁾

한편, 분석에서는 수입침투율보다 그것의 변화율을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고용의 변화는 결국 수입침투율 자체가 아닌 그것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입침투율의 변화율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법」상 기업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와도 부합하는 적절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한 수입경쟁산업의 정의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단위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각 산업별 수입침투율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변화율이 높은 상위 25%를 high import-competing 산업으로, 그 다음 25%를 mid import-competing 산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50%를 low import-competing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산업분류와 각 산업별 수입경쟁의 정도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수입침투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 제공되는 광공업 조사통계의 출하액과 HS 코드별로 제공되는 수출입액이 필요하다. 산업분류인 KSIC와 품목분류인 HS 코드는 서로 다른 분류체계이므로 연계표를 이용하여 이를 연결하였다.⁶⁾ 또한 각 산업별 수입경쟁 정도에 따른 근로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별 자료가 필요한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였다. 이 고용보험 DB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3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00~2007년 기간 동안 수입침투율의 변화가 높아 high import-competing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으로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5)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의 수입경쟁도를 보다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6) 보다 구체적으로 World Bank에서 개발한 World Trade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에 나타나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3버전과 HS(1992, 1996, 2002, 2007) 연계표를 이용하여 산업과 품목 분류를 매칭하였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KSIC와 ISIC를 서로 연결한 다음 WITS에서 제공하는 ISIC-HS 연계표를 이용하여 HS 코드와 연결하였다. 물론 KSIC와 ISIC의 분류가 세계 분류에서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분류 및 대분류에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KSIC-ISIC-HS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1〉 산업분류와 수입경쟁의 정도

KSIC Code	업종명	수입침투율의 변화	수입경쟁의 정도
30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0.3685	High
223	기록매체 복제업	0.2820	High
31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0.2199	High
35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930	High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0.1847	High
263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1846	High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0.1683	High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0.1469	High
361	가구 제조업	0.1364	High
193	신발 제조업	0.1279	High
192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0.1242	High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0.1105	High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1041	High
155	음료 제조업	0.0972	High
26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0.0965	High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0.0906	High
171	제사 및 방적업	0.0897	High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0.0718	Mid
212	골판지, 종이용기 및 기타 종이	0.0715	Mid
221	출판업	0.0527	Mid
191	가죽 제조업	0.0527	Mid
33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0.0518	Mid
153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0.0508	Mid
271	제1차 철강산업	0.0486	Mid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451	Mid
154	기타 식품 제조업	0.0440	Mid
244	화학섬유 제조업	0.0419	Mid
242	의약품 제조업	0.0369	Mid
222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0.0328	Mid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0.0317	Mid
251	고무제품 제조업	0.0314	Mid
313	철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0.0297	Mid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0279	Mid

〈표 1〉 계 속

KSIC Code	업종명	수입침투율의 변화	수입경쟁의 정도
181	봉제의복 제조업	0.0264	Mid
24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0.0263	Low
152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0.0231	Low
29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0.0223	Low
369	기타 제품 제조업	0.0211	Low
230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207	Low
202	나무,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0.0133	Low
333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0.0133	Low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112	Low
241	기초 화합물 제조업	0.0094	Low
331	의료용기기 제조업	0.0048	Low
33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0.0021	Low
295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0.0001	Low
21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0.0005	Low
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0.0142	Low
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0.0175	Low
151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0.0190	Low
35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0.0223	Low
160	담배 제조업	-0.0250	Low
172	직물 직조업	-0.0277	Low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0.0290	Low
29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0.0328	Low
28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0.0336	Low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	-0.0449	Low
201	채재 및 목재 가공업	-0.0571	Low
272	제1차 비철금속산업	-0.0590	Low
323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0.0649	Low
294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0.0771	Low
17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0.0862	Low
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0.0881	Low
352	철도장비 제조업	-0.1369	Low
173	편조업	-1.7381	Low

(KSIC 30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319)을 비롯하여 17개 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분석기간 동안 수입침투율의 변화는 적어도 9% 이상으로 나타났다.⁷⁾

IV.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징분석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단위에 대하여 각 산업을 high, mid, 그리고 low import-competing 산업으로 분류한 다음,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른 근로자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⁸⁾ 고용보험 DB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수입경쟁 심화 등 기업경영상 문제로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실업과 그에 따른 비용이 주요 연구대상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⁹⁾¹⁰⁾ 이하에서는 수입경쟁 정도에 따른 제조업부문 이직근로자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이직근로자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경쟁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양 산업부문 간 이직근로자의 특징을 조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7)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high import-competing 산업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도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분석 초기연도(1999년)의 수입비중은 매우 낮기 때문에 풀이된다. 즉, 분석 초기에는 수입침투율이 매우 낮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수입경쟁의 정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산업의 경우 총재직자수 및 전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수출의 변화도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다.

8) 사실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른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입경쟁의 정도가 비자발적 이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실직근로자와 수입경쟁 실직근로자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므로 수입경쟁이 비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또 다른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9) 고용보험 DB에서 다양한 이직사유 중에서 징계해고, 폐업도산 공사중단, 경영상 해고, 휴업, 임금체불, 기타 회사 사정, 기타 비자발적 사유 등을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하였다.

10) 분석대상기간 비자발적 실업이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25.1%, 비제조업의 경우 31.4%로 각각 나타났다. 물론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이보다 기업의 경영 악화로 타의적으로 발생한 실업이 본 연구의 목적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1.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이직근로자 특징¹¹⁾

〈표 2〉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이직근로자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표 2a〉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이직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자(39.2세)가 비제조업(38.8세)보다 평균연령이 높고 평균근속기간 또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평균근속기간이 39개월인데 반해 비제조업의 경우 23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의 약 62%가 남성이고 나머지 약 38%가 여성인데 반하여,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오히려 남성의 비율보다 약간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한편, 2007년 기준 제조업 취업자 중 남성이 67.4%인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 이직자 중 남성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중 남성이 56.4%이나 이직자 중 여성비율(50.9%)이 남성비율(4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제조업의 경우 이직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직종별 특성에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다만 판매직의 경우 비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이 1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조업의 경우 그 비중이 7%에 불과하다. 이는 앞의 비제조업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보다 비제조업에서의 비중이 높고 미숙련 블루칼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비제조업보다 높다.

학력수준별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의 이직근로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고졸 학력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은 약 55.5%로 비제조업의 46.6%보다 약 9% 포인트 높게 나타나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비제조업에서의 비중(38.5%)이 제조업에서의 비중(2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에서 고학력 이직자가 많은 것은 취업자 중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11) 본 논문에서 실업(失業), 실직(失職), 이직(離職) 등은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되나 실업 후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여 재취업하는 이직(移職)과는 구분된다.

12) 2007년 기준 제조업 취업자 중 남성이 67.4%인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 이직자 중 남성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중 남성이 56.4%이나 이직자 중 여성비율(50.9%)이 남성비율(4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제조업의 경우 이직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a〉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부문 이직근로자 특성

		비제조업	제조업	비율	
				비제조업	제조업
성	남	2,534,547	1,360,246	0.4915	0.6256
	여	2,622,214	814,014	0.5085	0.3744
연령	30세 미만	1,492,417	465,220	0.2894	0.2140
	30대	1,562,598	682,653	0.3030	0.3140
	40대	956,131	636,224	0.1854	0.2926
	50세 이상	1,145,623	390,163	0.2222	0.1794
평균연령	연령(세)	38.8	39.2	n.a.	n.a.
	표준편차	12.2	10.5	n.a.	n.a.
학력	고졸 미만	545,179	216,367	0.1057	0.0995
	고졸	2,403,360	1,207,791	0.4661	0.5555
	전문대졸	704,008	191,761	0.1365	0.0882
	대졸 이상	1,279,348	284,859	0.2481	0.1310
	미상	224,860	273,473	0.0436	0.1258
직종	화이트칼라	2,819,709	822,888	0.5468	0.3785
	판매직	643,475	152,914	0.1248	0.0703
	숙련 블루칼라	764,677	676,928	0.1483	0.3113
	미숙련 블루칼라	919,349	514,067	0.1783	0.2364
근속기간 (범주)	1년 미만	2,711,877	807,522	0.5259	0.3714
	1~3년	1,591,333	701,864	0.3086	0.3228
	3~5년	431,976	259,887	0.0838	0.1195
	5~10년	280,123	231,320	0.0543	0.1064
	10~20년	103,796	137,370	0.0201	0.0632
	20년 이상	37,664	36,297	0.0073	0.0167
평균근속	근속(월)	23.0	39.0	n.a.	n.a.
	표준편차	74.6	67.7	n.a.	n.a.
재취업 여부	재취업	3,789,076	1,583,697	0.7348	0.7284
	탈락	1,367,693	590,563	0.2652	0.2716
합 계		5,156,769	2,174,260	1.0000	1.0000

주: 미보고 등 고용보험 DB 특성상 변수별 합계가 총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2b〉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부문 이직근로자 특성: 재취업 근로자의 미취업기간

		비제조업	제조업	비율	
				비제조업	제조업
미취업기간	1월 미만	1,452,922	527,980	0.3836	0.3335
	1~3월	628,467	261,963	0.1659	0.1655
	3~6월	496,247	213,537	0.1310	0.1349
	6월~1년	508,006	244,397	0.1341	0.1544
	1~2년	366,175	174,471	0.0967	0.1102
	2년 이상	336,064	160,931	0.0887	0.1016
미취업기간	기간(월)	7.3	8.3	n.a.	n.a.
	표준편차	12.7	13.4	n.a.	n.a.
합 계		3,787,881	1,583,279	1.0000	1.0000

주: 이직근로자 중 재취업근로자만 포함.

이 더 높기 때문이다.¹³⁾

실직 후 재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이직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할 확률은 72.8%인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는 73.5%로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이직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기까지 걸린 미취업기간을 보면 비제조업에서는 약 7.3개월이 걸린 데 반하여, 제조업에서는 이보다 약간 긴 약 8.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표 2b〉 참조).

이직근로자의 임금손실 정도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이직근로자의 30.6%가 30% 이상 임금의 손실을 가져온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24%만이 30% 이상의 임금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c〉 참조). 이러한 차이점은 이직으로 인해 임금에 하락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비중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제조업의 경우 28.6%가 임금의 하락이 없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그 비중이 36.9%로 나타나 제조업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¹⁴⁾ 종합하면, 이직으로 인한 임금손

13) 2007년 기준 제조업 취업자의 50.1%, 비제조업 취업자의 42.1%가 고졸 이상 학력이며,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30.9%, 비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39%로 각각 나타났다.

14) 비교적 낮은 임금의 하락을 나타내는 0~15%의 임금하락을 가져온 비중은 비제조업에서 높고 비교적 높은 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는 15~30%의 임금하락을 가져온 비중은 제조

〈표 2c〉 제조업 및 비제조업 부문 이직근로자 특성: 재취업근로자의 임금변화

		비제조업	제조업	비율	
				비제조업	제조업
임금손실 정도	30% 이상 하락	141,812	112,908	0.2400	0.3058
	30~15% 하락	104,698	74,748	0.1772	0.2025
	0~15% 하락	126,189	75,712	0.2136	0.2051
	하락없거나 상승	218,102	105,831	0.3692	0.2867
합 계		590,801	369,199	1.0000	1.0000

주: 이직근로자 중 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만 포함하며 임금정보 누락자가 많아 관측치의 수가 줄어듦.

실의 정도는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2. 제조업 수입경쟁산업의 이직근로자 특징

지금까지 이직근로자의 특성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직근로자의 특성을 〈표 3〉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3a〉에 나타나 있는 high, mid, 그리고 low import-competing 산업군은 비제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에 한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침투율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산업을 수입경쟁(민감) 정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그룹별로 이직근로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수입경쟁의 정도가 가장 높은 산업군인 high import-competing 산업군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⁶⁾ 특히,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high의 경우 약 20%에 달함으로써 mid나 low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업이 비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서도 실업으로 인한 임금의 손실은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이직시점에서의 임금수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이직시점에서 150만 원 이하의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직근로자의 비율은 제조업(47.6%)이 비제조업(56.1%)보다 낮고 300만 원 이상의 임금수준에서는 그 비중이 제조업(8.9%)에서 비제조업(7.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6) High import-competing 산업의 평균연령이 mid 또는 low import-competing 산업군의 평균연령보다 높다는 대립가설에 대해 두 산업군의 평균연령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단측 검정한 결과 신뢰도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High와 mid(low) import-competing 산업 간 평균 비교시 z 통계값은 44.3(38.9)이다.

〈표 3a〉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른 제조업 부문 이직근로자 특성

		수입민감 정도			비율		
		High	Mid	Low	High	Mid	Low
성	남	228,020	337,444	740,934	0.6824	0.5621	0.6366
	여	106,116	262,911	422,934	0.3176	0.4379	0.3634
연령	30세 미만	66,398	133,379	254,325	0.1987	0.2222	0.2185
	30대	103,314	195,121	363,763	0.3092	0.3250	0.3125
	40대	98,251	169,529	345,162	0.2940	0.2824	0.2966
	50세 이상	66,173	102,326	200,618	0.1980	0.1704	0.1724
평균연령	연령(세)	39.8	38.8	39.0	n.a.	n.a.	n.a.
	표준편차	10.5	10.4	10.4	n.a.	n.a.	n.a.
학력	고졸 미만	35,940	54,460	115,342	0.1076	0.0907	0.0991
	고졸	180,511	312,179	669,959	0.5402	0.5200	0.5756
	전문대졸	26,676	57,469	102,563	0.0798	0.0957	0.0881
	대졸 이상	39,642	103,634	136,875	0.1186	0.1726	0.1176
	미상	51,367	72,610	139,123	0.1537	0.1209	0.1195
직종	화이트칼라	120,381	260,933	419,177	0.3603	0.4346	0.3602
	판매직	25,905	51,735	71,946	0.0775	0.0862	0.0618
	숙련 블루칼라	112,588	151,758	380,000	0.3370	0.2528	0.3265
	미숙련 블루칼라	74,097	133,756	288,934	0.2218	0.2228	0.2483
근속기간 (범주)	1년 미만	127,057	219,229	434,111	0.3803	0.3652	0.3730
	1~3년	100,944	198,250	378,792	0.3021	0.3302	0.3255
	3~5년	39,065	72,988	137,986	0.1169	0.1216	0.1186
	5~10년	36,353	62,881	122,741	0.1088	0.1047	0.1055
	10~20년	23,784	35,535	73,320	0.0712	0.0592	0.0630
	20년 이상	6,933	11,472	16,918	0.0207	0.0191	0.0145
평균근속	근속(월)	41.3	39.1	38.3	n.a.	n.a.	n.a.
	표준편차	69.6	55.5	73.5	n.a.	n.a.	n.a.
재취업 여부	재취업	248,571	423,976	854,168	0.7439	0.7062	0.7339
	탈락	85,565	176,379	309,700	0.2561	0.2938	0.2661
합 계		334,136	600,355	1,163,868	1.0000	1.0000	1.0000

주: 미보고 등 고용보험 DB 특성상 변수별 합계가 총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평균근속기간과 수입경쟁의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즉,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서도 수입경쟁의 정도가 심한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평균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high import-competing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평균근속기간은 41.3개월인데 반하여 mid, low import-competing 산업의 경우 각각 39.1, 38.3개월로 나타나고 있다.¹⁷⁾

다음으로 이직근로자의 특성을 수입경쟁의 정도와 성별 간의 관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high import-competing 산업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의 비중(68%)이 mid(56%)나 low(63%) 산업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mid import-competing 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직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수입경쟁의 정도가 보다 심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이직근로자의 학력수준과 수입경쟁의 정도 간에는 특별한 관계를 발견할 수가 없다. 학력수준과 더불어 이직근로자의 직종과 수입경쟁 정도, 즉 high, mid, low import-competing 산업 간에도 특이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직근로자의 재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실직 후 근로자가 취업할 확률이 수입경쟁의 정도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high import-competing(74.4%) 산업의 이직근로자가 재취업할 확률이 다른 수입경쟁도의 산업군(mid: 70.6%, low: 73.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b〉에 따르면 이직근로자의 미취업기간도 수입경쟁의 정도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이 가장 긴 산업은 mid import-competing(8.7개월) 산업이었으며, 그 뒤로 high(8.4개월) 그리고 low(8.1개월) import-competing 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직근로자의 평균임금손실 규모와 수입경쟁의 정도를 서로 연결하여 살펴보면, high import-competing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의 경우 30% 이상의 임금손실을 가져온 비중이 약 32%로 mid나 low import-competing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체 평균(31%)과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3c〉 참조). 즉, 이직근로자의 평균임금손실은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¹⁸⁾

17) High import-competing 산업의 평균근속기간이 mid 또는 low import-competing 산업군의 평균근속기간보다 높다는 대립가설에 대해 두 산업군의 평균근속기간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단측 검정한 결과 신뢰도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High와 mid(low) import-competing 산업 간 평균 비교시 z 통계값은 15.7(21.7)이다.

〈표 3b〉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른 제조업 부문 이직근로자 특성: 재취업근로자의 미취업기간

		수입민감 정도			비율		
		High	Mid	Low	High	Mid	Low
미취업 기간	1월 미만	87,455	135,418	287,782	0.3519	0.3195	0.3370
	1~3월	40,231	69,290	141,386	0.1619	0.1635	0.1656
	3~6월	31,166	57,128	116,896	0.1254	0.1348	0.1369
	6월~1년	36,717	66,811	131,813	0.1477	0.1576	0.1544
	1~2년	27,019	49,247	92,345	0.1087	0.1162	0.1081
	2년 이상	25,931	45,973	83,709	0.1043	0.1085	0.0980
미취업 기간	기간(월)	8.4	8.7	8.1	n.a.	n.a.	n.a.
	표준편차	13.8	13.7	13.2	n.a.	n.a.	n.a.
합 계		248,519	423,867	853,931	1.0000	1.0000	1.0000

주: 이직근로자 중 재취업근로자만 포함.

〈표 3c〉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른 제조업 부문 이직근로자 특성: 재취업근로자의 임금변화

		수입민감 정도			비율		
		High	Mid	Low	High	Mid	Low
임금 손실 정도	30% 이상 하락	18,274	30,494	59,560	0.3176	0.2999	0.3096
	30~15% 하락	11,553	19,506	39,633	0.2008	0.1919	0.2060
	0~15% 하락	11,572	20,266	39,229	0.2011	0.1993	0.2039
	하락없거나 상승	16,146	31,402	53,966	0.2806	0.3089	0.2805
합 계		57,545	101,668	192,388	1.0000	1.0000	1.0000

주: 이직근로자 중 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만 포함하며 임금정보 누락자가 많아 관측치의 수가 줄어들음.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직근로자의 특성을 수입경쟁의 정도와 연결하여 살펴본 결과 수입경쟁의 정도가 심할수록 평균연령이 높을 뿐만 아니라

18) 이직근로자의 재취업 확률, 미취업기간, 30% 이상 임금손실 각각에 대해 high import-competing 산업군의 평균값과 mid 또는 low import-competing 산업군의 평균값이 서로 다르다는 대립가설에 대해 두 산업군의 평균값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양측 검정한 결과 신뢰도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High와 mid(low) import-competing 산업 간 재취업 확률의 평균 비교시 z 통계값은 38.9(11.6)이며, 미취업기간의 경우 z 통계값은 -8.6(19.3)이며, 30% 이상 임금손실의 경우 z 통계값은 7.4(3.6)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경쟁도와 이직근로자의 재취업 확률, 미취업기간, 임금손실 간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high import-competing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이 여타 산업에서보다 깊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수입경쟁의 정도와 임금손실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직근로자의 학력수준 및 직종과 수입경쟁 정도와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제 분석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high import-competing 그룹으로 분류된 각 산업별로 이직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4>는 제조업의 이직근로자 특성을 high import-competing 각 산업별로 나타낸 표이다.¹⁹⁾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high import-competing 산업의 경우 신발제조업에서부터 자동차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high import-competing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의 일관된 특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먼저 제사 및 방적업 그리고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등과 같이 전통적인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부합하고 있다. 한편, 직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화이트칼라 직종에서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과 기록매체 복제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미숙련 블루칼라에서는 도자기 및 요업제조업과 일차전지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는 대부분(96.5%) 10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장 긴 근속기간을 보여주는 산업은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제조업(10년 미만 근속비율 67%)이다.²⁰⁾

재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자동차제조업과 선박 및 보트건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재취업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의 경우 재취업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하기가 가장 어려운 산업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산업이나 선박산업의 경우 설령 이직상태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재취업할 확률이 높는데 반하여, 사양산업에 있는 가죽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미취업기간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즉,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대부분 가죽제조업을 비롯한 전통

19) Mid and low import-competing 산업에 대한 근로자의 특성은 지면의 제약으로 실지 못하였다. 요청하면 저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20) 각 산업 이직자의 특성을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취업자의 특성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표 4〉 High import-competing 산업 근로자 특성

성	직종				근속	채취업 여부	합계	미취업 기간	합계*	임금손실	
	화이트 칼라	판매직	숙련블루 칼라	미숙련블루 칼라						30% 미만	하락
여성 비율	0.1526	0.2630	0.1199	0.4700	0.9532	0.8227	54,133	0.2665	44,521	0.6623	5,034
선박 및 보트 건조업	0.3904	0.5569	0.0589	0.1821	0.9653	0.7928	31,934	0.3576	25,312	0.7458	7,21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0.4735	0.3070	0.0905	0.2806	0.9415	0.6912	31,702	0.4172	21,911	0.7798	6,385
신발 제조업	0.5000	0.2536	0.0297	0.4799	0.8678	0.7005	30,962	0.4440	21,687	0.6126	6,396
제사 및 방직업	0.2731	0.3380	0.0700	0.3384	0.9299	0.6791	30,746	0.4209	20,874	0.6664	5,353
가구 제조업	0.1730	0.4251	0.0442	0.3306	0.9133	0.7520	28,464	0.3303	21,401	0.7092	5,23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0.0999	0.3775	0.0357	0.4195	0.6709	0.8431	28,328	0.2646	23,878	0.5009	4,382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0.4390	0.4117	0.0481	0.2884	0.9574	0.7516	21,003	0.3719	15,784	0.7433	3,717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0.4039	0.3029	0.0399	0.2643	0.9019	0.6868	13,769	0.4318	9,454	0.6822	2,797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0.4682	0.3129	0.3127	0.1626	0.9028	0.6956	13,318	0.3624	9,263	0.5868	1,825
음료 제조업	0.1773	0.3968	0.0468	0.3514	0.9276	0.6721	13,061	0.4254	8,775	0.6968	2,09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5429	0.4694	0.1636	0.1768	0.9577	0.6196	11,111	0.4836	6,882	0.7721	2,102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0.4578	0.3829	0.0497	0.3204	0.9346	0.7095	10,117	0.4307	7,174	0.7295	1,826
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0.1569	0.3715	0.0401	0.3637	0.9397	0.7926	5,607	0.3563	4,443	0.6703	1,377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0.4730	0.3519	0.0338	0.2190	0.8504	0.7233	5,095	0.3758	3,683	0.5164	856
추진지 및 일차진지 제조업	0.2709	0.4071	0.0606	0.2775	0.8780	0.7396	3,034	0.3904	2,244	0.6423	601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653	0.6992	0.0502	0.1267	0.9481	0.7038	1,752	0.4088	1,233	0.7911	359
기록매체 복제업	0.3176	0.3603	0.0775	0.3370	0.9081	0.7439	334,136	0.3608	248,519	0.6824	57,545
진 체											

주: *이직근로자 중 제조업근로자만 포함. **이직근로자 중 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만 포함.

적인 산업인데 반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 미취업기간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재취업비율이 가장 높았던 자동차산업과 선박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이직근로자의 임금손실과 high import-competing 각 산업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igh import-competing 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평균임금의 손실 정도는 원래 임금의 30% 미만 하락할 비중이 68%이며, 임금의 30% 이상 많은 임금손실을 가져올 비중이 나머지 32%이다. 이를 각 산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임금손실이 30% 미만 하락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경우는 신발제조업과 가죽제조업으로부터의 비자발 이직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산업에 대한 원래의 임금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이직상태로 놓인다고 하더라도 큰 임금의 손실이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반면 30% 미만 하락할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큰 임금의 손실을 가져올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나타났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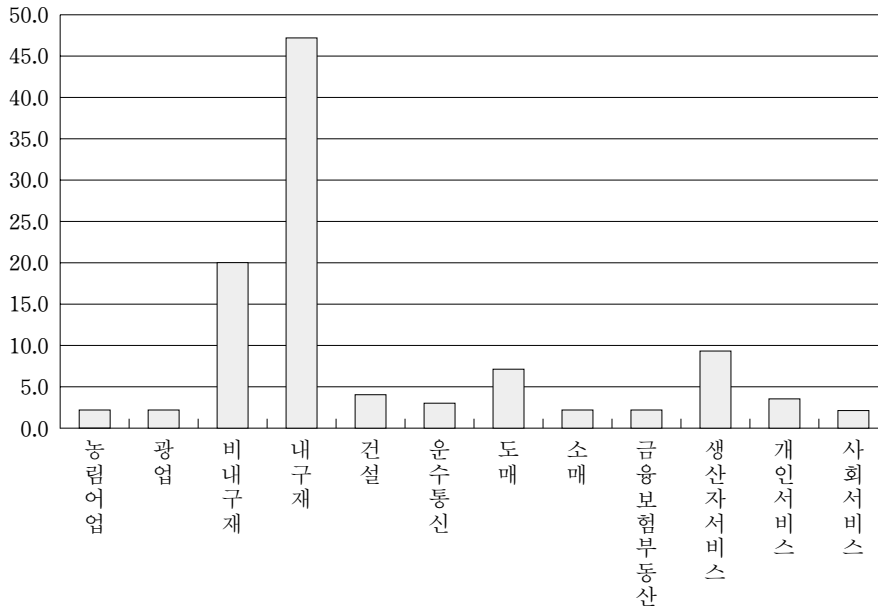
V. 실업 후 노동이동 분석

기존의 무역과 고용패턴의 변화에 관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무역은 필연적으로 국내기업의 노동수요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결국 근로자를 산업별로 재배치시키게 된다는 것이었다. 본 절에서는 실업근로자가 재취업하게 될 때 어떤 산업에서 어떤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는지, 또 실업 이전과 이후의 임금수준은 재취업 당시의 산업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앞에서 분류한 3가지의 수입경쟁 정도(high, mid, low)에 따라 재취업시 노동의 이동은 어떻게 다른지 등도 함께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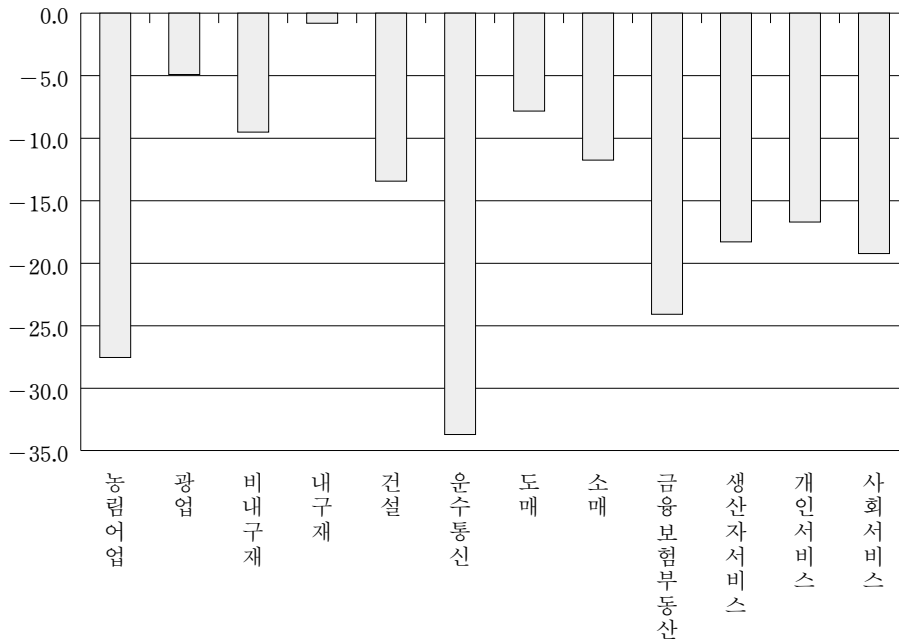
먼저 <그림 1>과 <그림 2>는 실업근로자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이들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 어떤 산업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동된 산업별로 평균임금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²²⁾ <그림 1a>에서 보듯이 제조업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 중 79%가 다시 제조업(내구재 및 비내구재)에 재취업하고 나머지 약 21%는 생산자서비스업(9.9%), 도매업(6.5%), 개인서비스업(3.3%) 등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제

21) 이 역시 자동차산업의 경우 원래의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22) 2000~2007년 동안 실업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그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저자에게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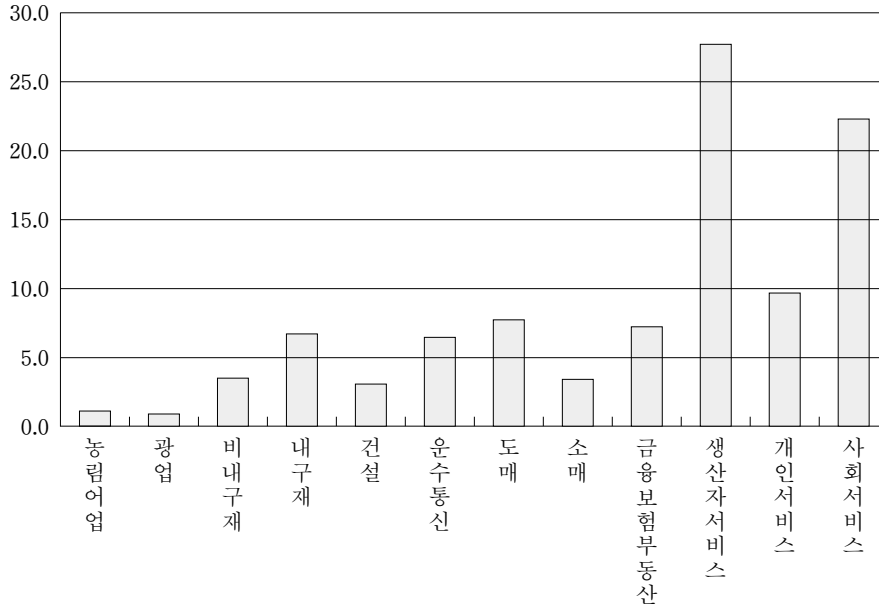


〈그림 1a〉 제조업 실직근로자의 노동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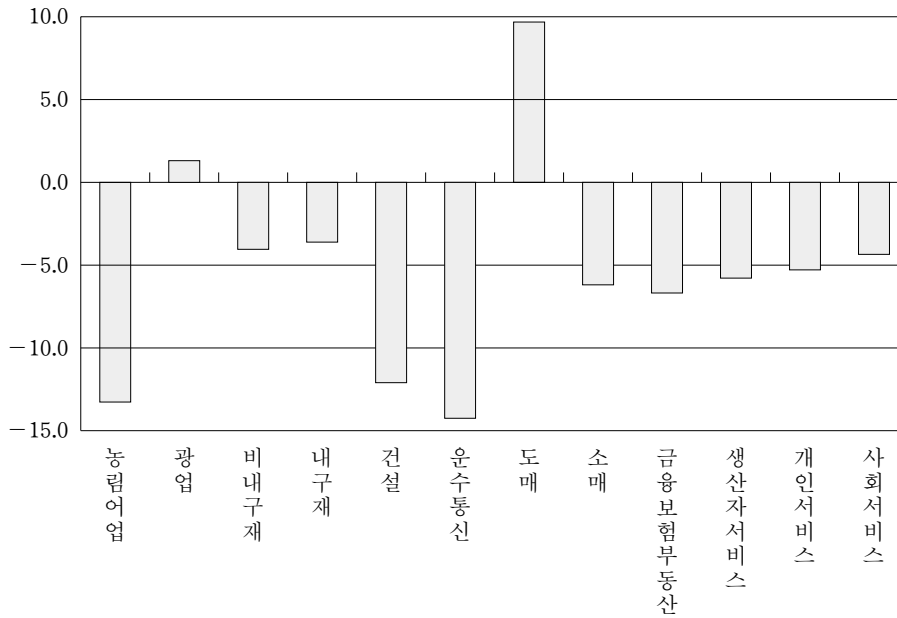


〈그림 1b〉 제조업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후 평균소득 변화율

130 한국 수입경쟁산업 이직근로자의 특징분석



〈그림 2a〉 비제조업 실직근로자의 노동이동



〈그림 2b〉 비제조업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후 평균소득 변화율

조업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의 경우 약 89.6%가 다시 비제조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a〉 참조). 이 중 생산자서비스(27.7%)에 가장 많이 재취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서비스(22.4%), 개인서비스(9.9%) 등에 재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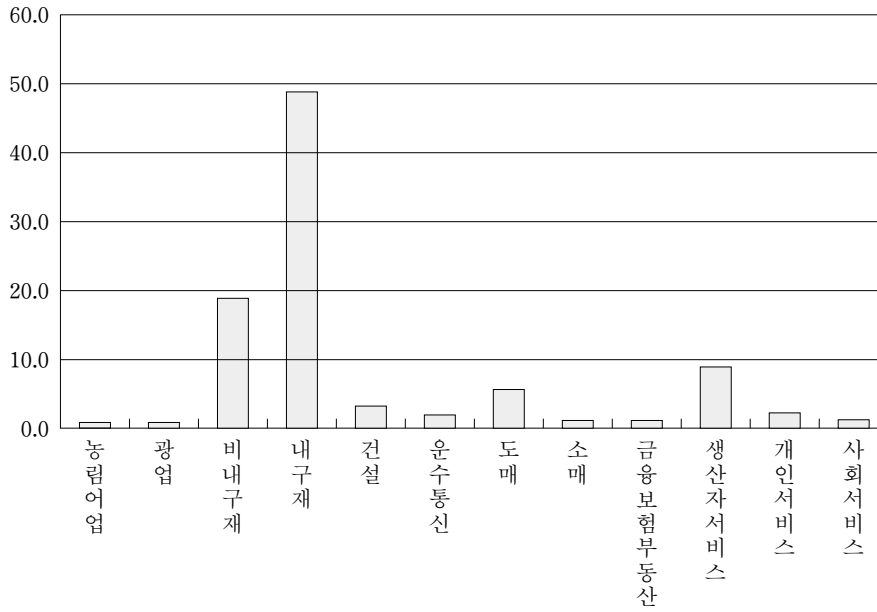
이제 재취업근로자의 평균소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b〉와 〈그림 2b〉에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가 재취업했을 때 나타난 평균소득의 변화율을 각 산업별로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재취업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운수통신 및 농림어업 산업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각각 34.5%와 27.2%의 평균임금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보험부동산, 사회서비스, 그리고 생산자서비스 등의 경우에도 상당한 소득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비제조업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가 재취업하였을 때 평균소득의 손실은 제조업으로부터 실업근로자의 소득변화보다 모든 산업에 있어서 적다. 특히, 도매업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실업 전과 비교하여 더 높은 평균소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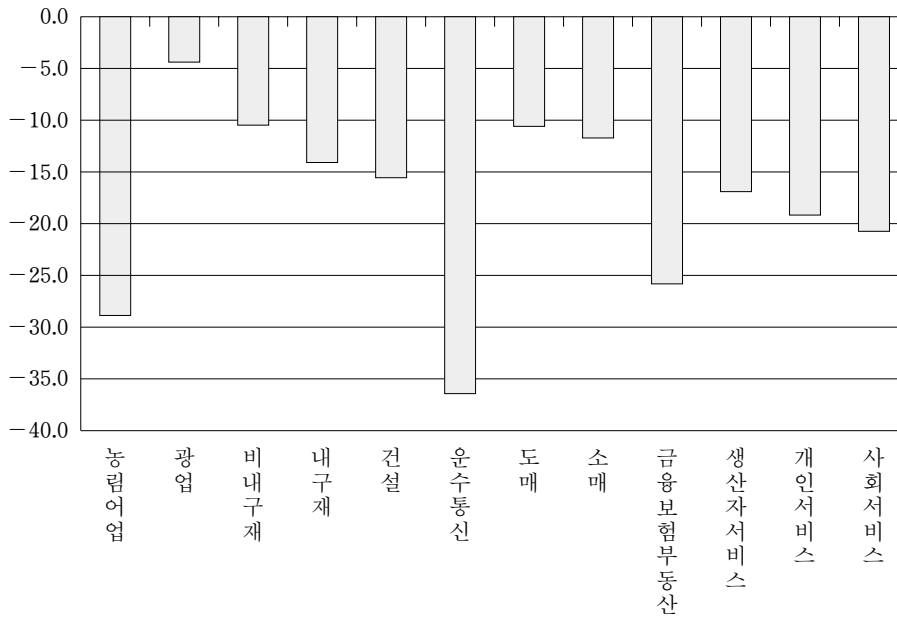
〈그림 3〉은 앞에서 분류한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른 실업근로자의 노동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high-import competing 산업군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가 재취업할 때 어떤 산업으로 이동하는지, 또 각 산업별로 평균임금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²³⁾ 〈그림 3a〉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high-import competing 산업군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가 소매업(1.7%)과 개인서비스업(2.8%)에 재취업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많은 부분이 각종 소매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에 많이 재취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분석결과는 high-import competing 산업군으로부터 실업근로자의 4.5%만이 소매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high-import competing 산업군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의 69.2%가 제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다음으로 많이 재취업하는 산업으로는 생산자서비스(9.5%), 도매업(6.3%) 등이다. 제조업에 재취업하는 근로자 중 약 50.1%가 내구재(durable goods)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19.1%가 비내구재(nondurable

23) Mid-import competing 산업군과 low-import competing 산업군으로부터의 실업근로자의 노동이동은 저자에게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132 한국 수입경쟁산업 이직근로자의 특징분석



〈그림 3a〉 High-import competing 산업 실직근로자의 노동이동



〈그림 3b〉 High-import competing 산업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후 평균소득 변화율

goods)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igh-import competing 산업군으로부터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했을 경우 근로자의 평균소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그림 3b>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비내구재의 경우 10.1%, 내구재의 경우 12.7% 정도의 평균소득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듯이 평균소득의 변화는 산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소득의 손실을 경험한 산업은 운수통신산업으로 약 36%의 평균소득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28%), 금융보험부동산(25.6%)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가장 낮은 소득의 손실을 나타내는 산업은 광업(3.6%), 도매업(10%) 등이다.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방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완전고용을 달성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고용 및 실업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입경쟁이 심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수입경쟁이 덜 심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서로 어떤 특징을 가지며 또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을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라 수입경쟁이 매우 심한 산업(high-import competing), 중간 정도의 수입경쟁을 가진 산업(mid-import competing), 그리고 수입경쟁이 비교적 덜한 산업(low-import competing)으로 구분하여 수입경쟁의 정도와 근로자의 특징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라 이직 전후의 평균소득 변화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업 후 노동경로 분석을 통해 실업 후 근로자가 어떤 부문으로 이동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직근로자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볼 때 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가 비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보다 평균연령이 높고 평균근속기간 또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상태에서 재취업까지 걸린 미취업기간도 제조업이 비제조업에서보다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에게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제조업 부문 이직근로자의 특성을 수입경쟁의 정도와 학력수준 간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 간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경쟁의 정도는 이직근로자의 재취업 확률 및 실업기간과도 특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경쟁이 높은 산업의 이직근로자가 수입경쟁이 낮은 이직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재취업하기 어렵다거나 실업기간이 길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따른 평균소득의 손실은 수입경쟁의 정도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high, mid, 그리고 low-import competing 그룹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 재취업에 따른 평균소득 손실은 수입경쟁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조업 전체로부터의 이직근로자 평균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수입개방이 낮은 산업의 이직근로자에 비해 수입개방이 높은 산업의 이직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 피해로 인한 실직근로자만을 특별히 지원해야 할 이유는 작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역자유화라는 명백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경제 전체가 이익을 보지만 일부 집단에서 피해를 본다면 사회 형평성(equity) 측면에서 피해집단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또한 특별 프로그램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역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해 피해집단의 반대를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직근로자는 재취업시 상당한 소득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가 비제조업으로부터의 이직근로자보다 재취업시 더 큰 평균소득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직으로, 특히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으로 인한 평균소득의 감소로 야기될 수도 있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험(wage insurance)²⁴⁾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업 후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24) 임금보험제는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재취업시 새로운 일자리의 임금이 전 직장의 임금보다 낮을 경우 신규 임금 차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임금보험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미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캐나다에서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미국 TAA 프로그램에서도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보험제를 운영 중이다.

달리 high-import competing 산업의 근로자의 약 70%가 실직 후 제조업에 다시 취업하였으며 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재취업하는 비중은 약 4.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수입경쟁의 정도에 따른 근로자의 특징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수입경쟁이 실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실직 후 재취업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근로자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분석은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우영·박순찬·이창수,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료 0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노동부, 『2006 고용보험백서』, 2006.
- 옥우석·정세은·오용협, “무역구조가 국제 노동분업, 노동수요구조 및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중 산업내 무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3호, 2007, 73~124.
- 임혜준·김정곤·박혜리·이홍식,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08-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Choi, H., “Import Competi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of Korean Manufacturing Workers: A Micro-data Analysis,” 2009, Mimeo.
- Currie, J. and A. Harrison, “Sharing the Costs: The Impact of Trade Reform on Capital and Labor in Morocco,”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No. 3, 1997, S44~S71.
- Dollar, D. and E. N. Wolff, *Competitiveness, Convergence an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Cambridge: MIT Press, 1993.
- Feliciano, Z., “Workers and Trade Liberalization: The Impact of Trade Reforms in Mexico on Wages and Employmen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5, No. 1, October 2001, 95~115.
- Grossman, G., “Imports as a Cause of Injury: The Case of the U.S. Steel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 1986, 201~223.

- _____,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n Import Competi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2, 1987, 1~23.
- Kletzer, Lori, *Gender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and Consequence of Job Displacement from Import-Sensitive Industries*, Santa Cruz, CA: University of California, 1995.
- _____, *Job Loss from Imports: Measuring the Cost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1.
- Revenga, A., “Exporting Jobs?: The impact of Import Competition on Employment and Wages in U.S. Manufactur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1992, 255~284.
- Sachs, J.D. and Howard J. Schatz, “Trade and Jobs in U.S. Manufactur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94, 1~84.
- Winters, L., N. McCulloch, and A. McKay, “Trade Liberalization and Poverty: The Evidence So Far,”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62, 2004, 72~115.
- Wood, A., “How Trade Hurt Unskilled Work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3), 1995.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Displaced Workers in Korean Import-competing Industries

Hyejoon Im* · Hongshik Lee** · Sungjae Park***

Based upon the degree of import competition, we categorize the Korean industries into high, mid, and low-import competing industries and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mport compet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voluntary laid-off workers. We find that the higher the import competition, the older displaced workers and the longer their job tenure. Next, there is no clear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mport competition and the education attainment or the occupation of displaced workers. Furthermore, there is no distinct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import competition and the probability of reemployment, unemployment period, or the extent of income loss when reemployed. Contrary to common belief, about 70 percent of displaced workers from the high-import competing industries are reemploy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le only 4.5 percent of them are reemployed in retails and individual service businesses.

Keywords: trade liberalization, labor market, layoff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social safety net

JEL classification: F16, J63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Yeungnam University, Tel: 82-53-810-2846, E-mail: hi6w@yn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Tel: 82-2-3290-2224, E-mail: honglee@korea.ac.kr

*** Coauthor, Senior Researcher, Korea Labor Institute, Tel: 82-2-3775-5584, E-mail: parksj@kli.re.kr

— |

| —

— |

| —